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고난 자연의 덕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禮)에 따라 행동한다.
- ②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고 분별적인 지식을 쌓아 나간다.
- ③ 나와 남의 상호 연계성을 자각하고 남의 해탈을 위해 헌신한다.
- ④ 만물에 이로움을 줄 수 있도록 타고난 인의(仁義)의 덕을 함양한다.
- ⑤ 인위적으로 일을 도모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소박하게 생활한다.

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지혜는 정의로운 국가와 정의로운 인간 모두에게 필수적인 덕이다. 지혜는 영혼에서 이성과 관련된 덕이고, 기개와 관련된 덕은 용기, 욕구와 관련된 덕은 절제이다.
 을: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경우에도 부동심을 유지한다. 실수를 하거나 해를 입어도 정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여기며,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은 것에는 항상 무관심하다.

- ① 갑: 진리의 근원인 참된 실재를 현실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 ② 갑: 이상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절제의 덕이 필요하지 않다.
- ③ 을: 부와 명예 같은 것은 원하지도 피하지도 말아야 한다.
- ④ 을: 사회 참여를 멀리하고 마음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 ⑤ 갑, 을: 이성애 맞는 욕구 충족도 덕의 함양과 양립할 수 없다.

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새나 짐승과는 함께 모여 살 수 없으니 내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누구와 더불어 살겠는가? 인(仁)은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니, 덕(德)으로 인도하고 예(禮)로 다스려야 사람들이 염치를 알게 된다.
 을: 사람들도 새나 짐승과 함께 생활하고 만물과 함께 무리지어 나란하니 어찌 군자와 소인의 구별이 있겠는가? 그들은 마치 무지(無知)한 듯 순진무구하여 덕과 떨어지지 않으며 아무런 욕심도 내지 않는다[無欲].

- ① 갑: 통치자는 도덕적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들을 교화해야 한다.
- ② 갑: 통치자는 재화의 고른 분배를 통해 사회적 화합을 꾀해야 한다.
- ③ 을: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위해 문명에 비판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
- ④ 을: 덕을 기준으로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
- ⑤ 갑, 을: 이상적 삶을 구현하려면 누구나 덕에 따라 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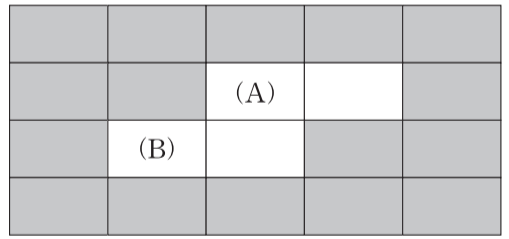
4.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우리는 쾌락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낀다면 쾌락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을: 우리는 쾌락과 고통의 지배를 받는다. 한 행위가 가져다 주는 쾌락과 고통 각각의 총량은 계산될 수 있다. 이 둘을 비교하여 차감했을 때 쾌락 쪽이 남는다면 그 행위는 개인 또는 사회에 일반적으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 ① 모든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가?
- ② 진정한 정신적 쾌락을 위해 모든 육체적 쾌락을 억제해야 하는가?
- ③ 사회 전체 쾌락의 증대 여부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가?
- ④ 사려 깊고 고상한 행위가 도덕적인 이유는 쾌락을 주기 때문인가?
- ⑤ 행복은 마음의 불안과 육체적 고통이 사라질 때 얻어질 수 있는가?

5.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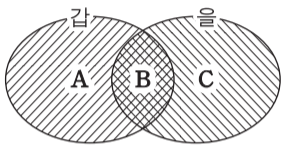
(가)
 ○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진리[法]에 의지하고 진리를 스승으로 삼아라.
 ○ 연기(緣起)를 보는 자는 곧 진리를 보며, 진리를 보는 자는 곧 연기를 본다.



(나) [가로 열쇠]
 (A): 인위적이거나 강제적 작위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
 예) 노자의 '○○ 자연' 사상
 (B): 외부 사물과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
 예) 장자의 '□□ 일체' 사상
 [세로 열쇠]
 (A): …… 개념

- ① 변화하는 현상계 속에는 어떠한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 ② 독립적인 실체로 간주될 만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 ③ 불멸하는 '나'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반대하기 위해 제기된 말이다.
- ④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 '나'에 대한 집착을 끊어 버리라는 말이다.
- ⑤ 모든 존재가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져 독자적 '나'가 없다는 말이다.

6. (가)의 고대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덕은 곧 지식이다. 좋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거나 나쁜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자제력 없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다. 정의든 절제든 용기든 모두 다 지식이다.</p> <p>을: 덕이 무엇인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무절제한 사람'은 후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인 반면,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자제력 없는 사람'은 후회할 줄은 아는 사람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보기>

ㄱ. A: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ㄴ. B: 이성과 추론을 통해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ㄷ. B: 삶의 목적인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덕이 필요하다.
 ㄹ. C: 덕 있는 사람이 되려면 덕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 갑은 중국 불교 사사가, 을은 한국 불교 사사가이다.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자성(自性)에는 잘못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다. 생각마다 반야로써 비추어 보아 법의 모습[法相]에서 벗어나면 자유자재하게 되니 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자성을 스스로 깨달음은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는 것이다.

을: 자성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더라도 습기(習氣)를 단번에 제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 나가 점차로 익힘으로써 공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일러 점차로 닦는 것[漸修]이라 한다.

<보기>

ㄱ. 갑: 단박에 깨닫기 위해 선(禪) 수행과 경전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ㄴ. 을: 참선(參禪) 수행으로 본성을 자각하면 보살행이 필요 없다.
 ㄷ. 을: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는 것이 수심(修心)의 방법이다.
 ㄹ. 갑, 을: 자신의 마음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달아야[頓悟]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가), (나) 사회사상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모든 사람이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근면과 자본을 바탕으로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가의 부가 증대될 수 있다.

(나) 모든 생산 부문의 경영 자체를 경쟁하는 개인들에게서 빼앗아 사회 전 구성원들의 공동 책임 하에 공동 계획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사적 소유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생산 수단과 생산물의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보기>

ㄱ. (가): 자유경쟁 원리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한다.
 ㄴ. (나): 분업은 숙련공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결과적 평등을 실현한다.
 ㄷ. (나): 생산 수단의 사적인 소유는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다.
 ㄹ. (가), (나): 필요에 따른 분배보다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고대 동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람들이 모두 본성[性情]을 따르게 되면 틀림없이 혼란한 상태[暴]에 이르게 된다. 이에 반드시 스승[師]과 법도[法]에 따른 교화가 있어야 하며 예의의 도리를 가르쳐야 한다.

을: 사람들을 무력으로 복종시키려 하면서 인(仁)을 행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 패도(霸道)이다. 덕으로써 인을 행하는 왕도(王道)를 실천하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복종하게 된다.

<보기>

ㄱ. 갑은 예를 기준으로 삼아 욕망[欲]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백성은 먼저 항심을 갖춰야 항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ㄷ. 을은 인의(仁義)를 해치는 군주는 추방될 수 있다고 본다.
 ㄹ. 갑, 을은 법이나 예에 의한 정치를 모두 부정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중세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행복은 이성(理性)에 따르는 삶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성적으로 내재하는 자연법의 명령에 따라 덕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현세의 행복일 뿐이고, 영원한 행복은 신을 보고 신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을: 행복은 오직 신앙으로 가능하다. 행복의 필수 조건은 영원한 생명인데 원죄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은 신의 은총을 믿음으로써 지상의 나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신의 나라로 가야 한다.

- ① 갑: 신앙이 이성보다 우선하지만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② 갑: 자연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이라도 법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한다.
 ③ 을: 신은 완전하고 선하기 때문에 선의 결여인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
 ④ 을: 신을 사랑하고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이다.
 ⑤ 갑, 을: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11~12]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만약 칠정과 사단을 꼭 두 변(邊)으로 나누려고 한다면 인성(人性)의 본연과 기질도 나뉘어 두 성이 될 것이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천리(天理)는 무위(無爲)인 것으로서 반드시 기(氣)의 기를 타야 움직이는[動] 것이니, 기가 움직이지 않고서 이(理)가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을: 만약 혼합하여 말한다면 칠정이 이와 기를 겸(兼)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명확하다. 그러나 칠정을 사단과 대립시켜 구분되는 것으로 말한다면, 칠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이의 관계와 같다. 그 이름이 모두 가리키는 바가 있으므로 주(主)가 되는 바에 따라 나누어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11.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ㄱ.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타서 드러난 것임을 모르고 있다.
 ㄴ. 칠정의 연원과 사단의 연원이 다르지 않음을 모르고 있다.
 ㄷ. 이는 발하는 까닭[所以]일 뿐 발하는 것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
 ㄹ. 기처럼 이도 자발적으로 동정(動靜)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갑, 을과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사심(四心)이 바로 사단이며, 사덕(四德)은 사단을 확충한 것이다. 측은(惻隱)을 확충하여 자상함의 극치에 이르면 인(仁)이 천하를 뒤덮게 된다. 그러나 확충하지 못하면 인이라는 명칭은 끝내 성립할 수 없다.

- ① 사덕은 천리가 아니며 사단을 실천해야 이루어지는 것인가?
- ② 사덕은 사단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선천적인 것인가?
- ③ 사덕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性]에 내재하는 선한 것인가?
- ④ 사단은 사람에게 있는 마음[心]이고 사덕의 시작이 되는 것인가?
- ⑤ 사단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嗜好)에 따라 행동하여 형성되는 것인가?

13.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있을 수 없다. 신은 우리의 정신이 인식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 현자(賢者)는 영혼의 흔들림이 거의 없고,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자신과 신과 사물을 인식하며, 항상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나)	<p>학생: 어떻게 해야 현자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사상가: ㉠</p>

- ① 신과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여 인격신의 은총을 받아야 하네.
- ② 오직 이성애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념을 버려야 하네.
- ③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필연적인 인과 질서에서 벗어나야 하네.
- ④ 신을 이성적으로 관조하거나 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힘써야 하네.
- ⑤ 만물의 초월적 원인인 신을 인식하거나 파악하려고 애써야 하네.

14.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덕을 추구하는 삶은 최대 행복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대 행복의 원리는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한층 더 가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양 이외에 질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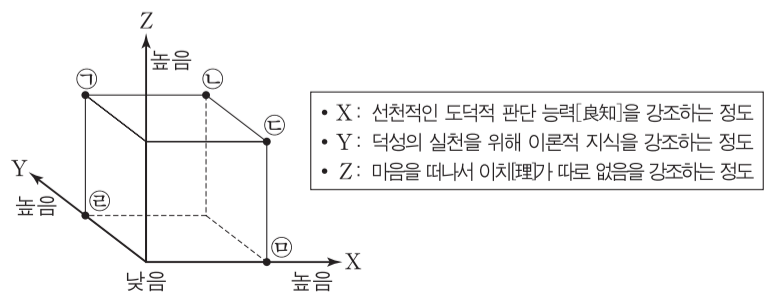
을: 덕은 인간 본성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획득된 자질이다. 덕을 소유하고 실행함으로써 실천 안에 들어 있는 선을 실현할 수 있다. 덕은 사회적 맥락 속에 있는 서사적 자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나는 어떤 이야기의 부분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 ① 갑: 지적이고 심미적인 활동은 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갑: 행복을 위한 육체적 쾌락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 ③ 을: 덕은 전통에서 벗어난 개인의 주체적 삶을 통해 획득되어야 한다.
- ④ 을: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덕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15. 갑 사상가의 입장에 비해 을 사상가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람의 양지(良知)는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궁리(窮理)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한 것을 궁구할 수 없다. 궁리란 아는 바로써 모르는 것에 이르며 통달한 바로써 통달하지 못한 것에 이르는 것이다.

을: 내 마음의 양지인 천리(天理)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면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 내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치지(致知)이고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는 것이 격물(格物)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6.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진리는 개인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나와 무관한 객관적인 것을 아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개체로서 개별자인 나 자신이 보편적인 것보다 높은 데 있고 그러한 개별자인 내가 절대자인 신과 절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역설적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을: 진리를 유용성으로 보는 것을 특정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의 유용성이 노상 강도의 이익에 의해 측정될 수는 없다. 그 가치는 도로로서의 효용성과 그 실제 기능 여부에 의해 측정된다. 진리를 측정하는 척도로서의 유용성도 마찬가지로이다.

- ① 갑은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본다.
- ② 갑은 실존의 문제는 오직 주체적 결단을 통해 해결된다고 본다.
- ③ 을은 진리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을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관찰과 실험이 모두 중요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경험적 탐구로 보편적 도덕 기준을 발견해야 한다고 본다.

17.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주적 의사 결정에서는 경쟁적 이해관계의 타협이나 거래가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토의 과정을 통해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합의가 중요합니다.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에게만 정책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의사 결정 자체보다는 집단적 의사 결정 과정의 '질(質)'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 간의 대화, 협의, 합의의 과정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행위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정치 참여이며, 순전히 사적인 이익을 표출할 수도 있는 투표 행위와는 대조적으로 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 ① 시민들 간의 토론과 소통을 통해 정책 결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 ② 정책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의사 표현의 기회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 ③ 사적인 이익을 표출할 수 있는 투표로 시민의 정치 참여를 높여야 한다.
- ④ 투표로 선출된 대표에 의해서만 정책이 심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 ⑤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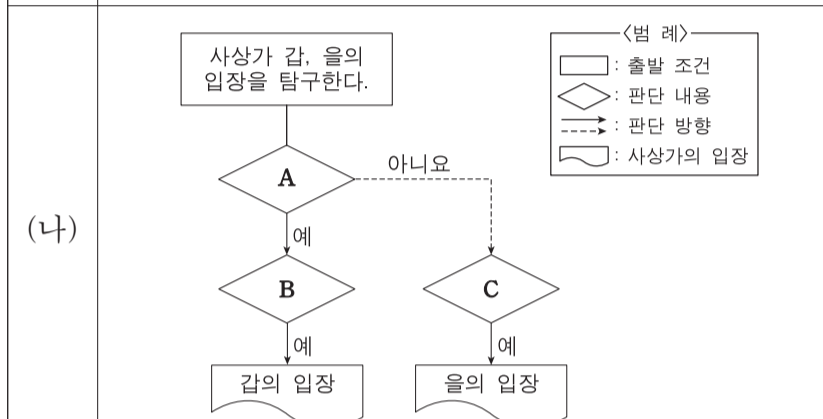
1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시인(是認)을 얻는다. 공감이나 아니라면 우리는 사회를 위한 포괄적인 관심을 전혀 갖지 못한다. 어떤 성질이나 성격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기 때문이다.
 을: 행복의 원리가 준칙(準則)을 제공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결코 의지의 법칙으로 쓰일 준칙을 제공할 수는 없다. 행복에 대한 인식은 경험 자료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행복의 원리는 보편적 규칙을 줄 수가 없다.

- ① 갑: 이성이나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
- ② 갑: 행위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도덕적 구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③ 을: 보편화할 수 있는 준칙은 도덕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을: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 ⑤ 갑, 을: 도덕 판단의 근거는 모든 이성적 존재들의 행복 증진이다.

19.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사회적 가치들은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하며, 각 분배 영역에는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이 있다. 어떠한 분배 영역의 가치도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을: 사회적 기본 가치들 사이에 대한 선호를 기준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은 서열적으로 배열된다. 이는 기본적 자유와 경제적·사회적 이득의 교환이 허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나) 

<보기>
 가. A: 정의로운 사회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는가?
 나. B: 분배 영역들 간의 경계는 안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가?
 다. B: 상이한 사회적 가치를 상이한 기준으로 분배해야 하는가?
 르. C: 사회적 이익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

① 가, 르 ② 나, 다 ③ 나, 르
 ④ 가, 나, 다 ⑤ 가, 다, 르

20.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은 오로지 폭력과 기만이 요구되는 가혹한 자연 상태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의 일부는 인간의 정념에서, 일부는 인간의 이성에서 생겨난다. 인간을 평화로 향하게 하는 정념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 생활의 편의를 돕는 생활 용품에 대한 욕망, 그러한 생활 용품을 획득할 수 있다는 희망 등이 있다. 그리고 이성은 인간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규약들을 제안한다.

<보기>
 가. 시민은 계약 파기를 통해 언제든지 주권자를 교체할 수 있다.
 나.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 국가가 성립한다.
 다.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이므로 이성적으로 행위할 수 없다.
 르.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르 ⑤ 다, 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